



##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종 인증

지질명소 20·역사문화명소 42곳 포함  
광주·전남 관광산업·경제활성화 기대

### 5월 12일 범시도민 한마당

무등산 주상절리대, 화순 서유리 공룡 화석지, 적벽 등 무등산권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됐다. 이는 무등산권이 수려한 경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이번 인증을 계기로 무등산권지질공원의 세계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12일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204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시와 담양군, 화순군이 신청한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세계적으로는 137번째, 국내에서는 제주도, 정선군에 이어 3번째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광주광역시와 담양군 전역, 화순군 일부를 포함한 1051.36km<sup>2</sup>의 면적에 해당한다. 지질명소는 무등산 정상 3봉(천·지·인왕봉), 서석대, 입석대,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적벽 등 20개소, 역사문화 명소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죽녹원 등 42개소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는 곳으로 보전, 교육,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제도다. 이로써 무등산권역이 세계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담양과 화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5·18기념관 등과 연계된 관광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인증과 관련, 전남대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단장 허민 부총장)은 5월 12일 광주시의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와 연계해 범 시도민 전지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5월 19일에는 지오빌리지 청풍마을에서 인증 기념 체험과 농산물 판매장터가 열린다.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인증 기념 국제 포럼을 개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의의와 함께 향후 세계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무등산과 이를 둘러싼 광주, 담양, 화순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쾌거이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회원으로써 국제관광시장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상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창출한 경제적 이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오늘부터 3일간 열전 돌입

# 후보들 黨心 꺼안고 文心 마케팅

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  
김영록·신정훈·장만채 막판 총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오늘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민주당의 높은 전남지역 지지율 등을 감안하면 '공천은 당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김영록·신정훈·장만채(가나다순) 3명의 경선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선 어떻게 진행되나? = 13일부터 15일까지 일반 국민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ARS투표 50%를 합성한 결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경선 결과는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7~8시경 중앙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경선 1, 2위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결선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을 분석해보면 현재까지 월등히 높은 지지율을 접하고 있는 절대 강자가 없는 만큼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결선투표도 1차 경선과 같은 방식으로 치러지게 된다.

◇관전 포인트 및 변수 = 무엇보다 당심(黨心)인 권리당원의 표심 향배가 주목된다. 전남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수가 7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권리당원 표심이 경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각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지역별 권리당원 조직 등을 흡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직함이 표심에 얼마나 영향



혁신도시 채용설명회 참석 취업준비생들 12일 오후 나주 동신대 체육관에서 열린 '2018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기관들의 채용 계획을 듣고 있다. 올해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한국전력과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을 미치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신정훈·김영록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청와대 농업·농촌정책관과 농림부장을 지낸 만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장만채 후보는 이를 사용할 수 없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문심(文心) 마케팅'에 열을 올린 김영록·신정훈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직함 효과'를 거둬도 관심이다. 반면, 장만채 후보는 뒤늦게 경선전에 뛰어들

후보와 달리 전남지사 준비를 꾸준히 해온 만큼 권리당원 표심에서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체 유권자의 40%에 육박하는 여·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 표심의 향방도 경선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의식해 장만채, 신정훈, 김영록 후보는 모두 동부권의 요충지인 순천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경선을 준비해왔다. 결선투표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1차 경

선에서 탈락한 후보 측 지지자들의 표심이 어떤 후보로 쏠리느냐에 따라 경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면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탈락 후보 측 지지자들이 2위 후보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2위 후보의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선투표가 민주당 전남지사 공천권을 거머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강기정·양향자·이용섭 "내가 광주발전 책임자"

민주 광주시장 경선 1주일 앞  
광주형 공약 내고 민심에 호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기정·양향자·이용섭 예비후보가 잇따라 '광주의 미래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특히 촛불 정권과 문재인 정부 탄생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

방선거이기에 저마다 '광주 정신'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면서 '광주형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민주당 시장 경선은 당원 명부 유출 등으로 경선 초기부터 후보 간 공방으로 치닫고 있어 최근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책 선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세 후보는 학계와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팀을 가동하고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통해 사회·경제·문화·여성·복지·교육 분야에 걸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아직 경선이 며칠 남아 있어 각 후보 캠프의 모든 공약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 후보들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4차 산업혁명 주도

를 통한 500만 광역경제권 실현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여성·청년·문화 정책을 비롯한 서민금융제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일선방직과 백운광장, 송정역 일대를 신경계 거점으로 조성하는 등의 도시재생 공약 등이 눈에 띈다. 양향자 예비후보는 광주 센트럴파크, 518m 빛의 타워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습 교통체증 해소, 불법 주정차 해소 등의 생활 공약도 포함시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도심 속 새로운 중심, 브랜드에 교육을 더하다

# e편한세상 순천

4월 13일 주택전시관 오픈

총 605세대 분양 | 분양문의 061-743-5100 | www.daelim-apt.co.kr

※ 상기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개요 및 분양세대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